

국제유가, 드디어 36달러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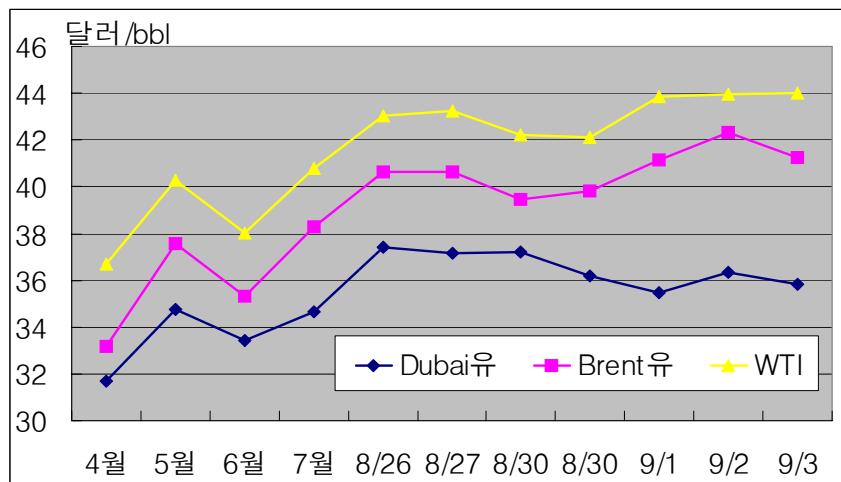
석유공사, 9월3일 Dubai유 35.81달러 기록 ... 유코스 정상생산

국제유가가 원유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3일 현지에서 거래된 북해산 Brent유는 전날보다 1.04달러 하락한 배럴당 41.26달러를 기록했고, 중동산 Dubai유는 0.54달러 떨어진 배럴당 35.8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02달러 오른 배럴당 44달러를 기록했다.

선물거래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10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가 각각 0.07달러와 0.34달러 하락한 배럴당 43.99달러와 41.2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추이(2004)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러시아 유코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러시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이어 무장세력의 송유관 파괴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원유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4/09/06>